1 맑고 얼큰한 낭푼이 닭한마리.
2 새빨간 양념으로 만든 매콤한 닭볶음탕.
3 '낭푼이닭한마리' 양정순 대표.
4 식당 전경.

양푼에 가득 담긴 얼큰매콤 닭한마리

당찬 맛집을 찾아서

<172> 제주시 이도2동 '낭푼이닭한마리'

맑고 얼큰한 육수에 담긴 닭한마리, 매콤하고 새빨간 양념에 빠진 닭볶음탕, 그리고 하얀 치즈에 덮여있는 닭볶음까지. 제주시청 인근 '낭푼이닭한마리'에 들어설 때면 '오늘은 뭘 먹을까?'하는 행복한 고민이 펼쳐진다.

양정순(70) 대표가 운영하는 '낭푼이닭한마리'가 제주시청 인근에 자리를 잡은 지는 올해로 9년째다. 갈비집·한정식 등 식당 운영만 벌써 32년째라는 양 대표는 "누구에게나 저렴하고 친근한 음식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닭만큼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의 닭음식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게 오픈 초반에는 홍보도 거의 안하고 위치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라 손님이 많이 없었다고 한다. 양 대표는 "SNS 홍보 같은 건 방법도 모르고 해서 손 놓고 있었는 데 가게에 오셨던 손님분들이 직접 SNS에 올려줘서 입소문이 점점 퍼지게 됐다"며 "정성으로 요리를 꾸준히 하면 손님들이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나무로 된 테이블·의자·벽 등의 인테리어가 식당이 아닌 펜션에 놀러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낭푼이닭한마리'의 대표메뉴는 가게 이름처럼 '낭푼이 닭한마리'와 '낭푼이 닭볶음탕' 그리고 '돌판 치즈닭볶음' 등 이 3가지다. 다양한 연령대와 저렴한 가격 덕에 한 메뉴가 특별히 잘 나간다기보다는 3가지 메뉴가 고루고루 나간다고 한다.

닭한마리·닭볶음탕·치즈닭볶음 등 골고루 인기… 식당 경력만 32년째 "항상 친근한 식당으로 기억 남고파"

그래도 그 중 하나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양 대표는 "낭푼이 닭볶음탕"이라고 답했다. 메뉴 이름 그대로 양푼에 가득 담긴 닭과 감자, 떡 등을 보고 있노라면 입안에 침이 고이기 마련. 잘 익은 닭다리를 한입 베어 먹으니 '닭고기가 이리도 부드러울 수 있구나'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 취향에 따라 생면사리, 라면사리, 수제비 등도 추가해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먹을 수 있다.

담백하고 매콤한 맛의 비결은 정성이 듬뿍 담긴 육수에 있다. 닭뼈와 닭발 등을 넣고 72시간 동안 푹 우려낸 육수가 들어간 국물 맛을 볼때면 나도 모르게 '캬~'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리 공기밥을 시키거나 사리 등을 많이 추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닭볶음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볶음밥 코스가 남아있으니 말이다. 살짝 졸인 국물에 양념, 김 등이 들어간 밥을 볶아 먹어보면 어느새 양푼이 바닥을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낭푼이닭한마리'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즐비하다. 복날이면 생각나는 삼계탕과 점심메뉴로 많이 찾는 닭칼국수, 바지락칼국수 또한 준비돼 있다.

닭요리가 질린다면 가끔은 오리와 돼지 요리로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 전날 예약주문만 받는다는 오리백숙·녹두죽, 오리주물럭·낙지한마리·오리탕 그리고 돼지샤브샤브는 단골 손님들의 요청으로 처음에 없던 메뉴들이 하나둘 추가됐다고 한다.

양 대표는 "어린 학생들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갈때 만큼 힘이 나는 게 없다"며 "항상 친근하고 부담없는 식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전했다.

'낭푼이닭한마리'는 제주시 광양13길 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다. 매월 첫번째·세번째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 꼭 확인하고 가길 바란다. 문의 724-6200.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4) 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 ②

지난달 2일 주정공장 터에서 진행된 71주년 제주4·3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제.

바다 잠긴 주검들… 가혹한 섬의 운명

주정공장에 끌려간 아버지 트라우마 겪는 이순의 한수 '유한' 속 바다 비통의 공간

지난 4월,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 터에 하이얀 종이 조형물을 어깨에 올려놓은 일본인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수난의 현장에서 바다에 잠긴 넋들을 위무하는 굿판이었다. 제주땅에 발디딘 이방인들은 제주 토박이 심방의 안내에 따라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너머 파도가 물결치는 그 어디쯤 헤매고 있을 고혼들을 달랬다.

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2005)에는 그 이야기가 있다. 운수회사 서기로 근무하다 퇴직한 예순의 한수가 등장하는 '유한(遺恨)'이다.

"6·25전쟁 발발 때 저기 동축항 주정공장 창고로 끌려간 사람들 말예요. 그 사람들 어찌 되었나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사로운 일로 가출했다면 저는 벌써 잊었을 거예요. 이처럼 괴롭고 그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국가가 한 일입니다."

한수는 옆 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직 경찰에게 따지듯 말한다. 6·25가 일어나자 재검속으로 연행된 이들을 제주 앞바다에 수장했다, 500여 명을 발가벗기고 제주항에서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싣고 가 돌을 매달아 떨어뜨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몰아세운다.

실제로 이 당시 일본 대마도 해안에는 수백 구의 한국인 시신들이 떠올랐다. 제주에서 흘러갔을 주검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주정공장 위령제에서는 한국에서 떠내려온 시체가 너무 많아 뗏목을 만들어 야마구치, 시마네현으로 다시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본인 증언이 나왔다.

주인공 한수에게 바다는 비통의 공간이다. 짠내음이 밀려들었을 제주항 동부두 주정공장은 제주4·3에서 6·25로 이어지는 동안 최대 규모 수용소이자 감옥이었다. 한수는 환영을 본다. 주정공장 창고 벽 위쪽에 쇠창살이 박힌 자그만 구멍 사이로 덩굴손처럼 감겨붙은 굶주린 자의 앙상한 손가락들이 어른거린다. 그 손들이 눈앞을 가려오면 한수는 철창 속으로 갇혀버리는 것만 같다.

오경훈 작가는 유년기에 4·3을 겪었다.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제주읍으로 이사하기 위해 땅을 판 돈 등을 모아뒀는데 산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모조리 소실됐다. 실의에 빠진 아버지는 그가 11살때 세상을 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피신하며 들었던 총성은 그를 오래도록 붙들었다. 4·3의 기억이 나이를 먹을수록 커졌다는 그는 '당신의 작은 촛불'(1988)을 시작으로 집요하게 4·3을 다뤘다.

제주도민 10분의 1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4·3 무렵의 제주도는 고립된 섬으로 '피와 눈물과 시체의 삼다도(三多島)'(양정심)였다. '유한'은 바다가 보이는 주정공장을 배경으로 어쩌면 섬이어서 더 가혹했을 역사를 환기시킨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